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	2016.9.1. ~ 11.30.
신고대상	연구개발비, 복지분야, 농축임수산분야 등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상담	국번 없이 110
팩 스	044) 200-7972 스마트폰앱 "부패 · 공익신고" 앱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 (임광빌딩 신관 1층)「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신고자는 신분 · 비밀 보장과 신변보호 및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Center for Reporting Public Subsidy Fraud

201610

KEPCO E&C Family

www.kepco-enc.com

newpower, newstandard

2016년 10월호

KEPCO E&C Family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04 K-Message | 경영 메시지

06 Focus | 창립 41주년 맞이하다 외

10 청백리 | 이동근 상임감사, 경영관리본부 부서장과 대화의 장 실시 외

12 명품기술 | 원전 초기사건 발생빈도 평가방법론개발 및 평가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6 우체통 | 신입(인턴)사원 교육을 마치며 외

20 일하며 즐기며 | 월성현장 한마음 컬처데이 행사를 마치며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24 新성장지도 | 가을, 숨겨진 민통선의 비경 – 양구

30 Storytelling | 19세기 중반, 한반도에 잦은 지진이 일어나다 – 17년동안 14회의 지진

32 기자칼럼 | 제보자

34 건강 100세 | 갑작스런 어깨통증, 자세와 체형에도 문제가 있다?

36 생활과 과학 | 가상 공간에서 모이는 소셜 미디어 시대가 열린다

38 Culture | Exhibition, Musical, Book, Movie

40 KEPCO E&C NEWS | 2016년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외

42 한기氏의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44 Inside Outside | 참사랑봉사단 외

46 인포메이션 | 관리서비스 부실한 렌탈 정수기 이용 계약해지 시 분쟁해결기준은?

47 에코포토 | 자연의 속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통권 417호 · 발행인 박구원
발행일 2016년 10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위즈(070-8808-7990)

도전과 응전을 통해 세상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한기

친애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한들거리는 코스모스의 여유로운 모습과 함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청량(淸凉)한 가을 밤의 정취도 가슴 속 깊숙이 스며드는 이 아름다운 계절의 한 가운데에서, 회사 창립 4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한국전력기술이 있기까지 젊음을 한기에 헌신하시고, 여전히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기 선배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시고 있는 정부, 한국전력공사 및 여러 협력기관, 그리고 김천 지역사회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한기의 지난 41년은 "열정, 성실, 도전의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자립을 위해 끊임없이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국가기간산업의 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향한 역사적 사명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기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을 생각하면,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거나, 현재의 역량에 자만할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기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노출된 부조화와 갈등은 최소로 줄이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마음가짐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먼저, 우리 한기는 기술회사로서 기술혁신만이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 한기가 기술혁신을 통해 핵심적 기술우위를 갖게되면 어떠한 경쟁상대라도 우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우리 한기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이켜 보면 선진국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착해나가는 빠른 추격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후발기업의 위치로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기는 스스로의 기술혁신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 중심으로만 형성된 현재의 에너지 기술시장의 장벽이 영원할 수 없고 확고부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룩하지 못하면, 그 장벽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강인한 정신으로 끊임없이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 한기가 최고임을 확인시키는 것이 생존의 길임을 명심합시다.

한기가족 여러분

한기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거듭나는 슬기를 갖춘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혁신역량을 잃어버리면 강자들과 힘겨루기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복잡한 변화 속에서 순식간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기업은 능동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하고 개혁해서 놀라운 성과들을 거둔 반면, 또 어떤 기업들은 혁신과 변화를 게을리 함으로써, 시대의 조류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기술과 조직을 혁신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우리 한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한기가족 여러분

우리 한기는 한 방향을 향해서 구성원 모두의 의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기 위해 치열하고, 다양하게 논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생산적이지만, 일단 결정된 방향을 두고 논란을 지속하고 분열이 계속된다면 성장의 에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부의 분열은 외침(外侵)보다 항상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명제(命題)입니다. 위기의 일상화 시대를 맞아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겨내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모두가 합심하여 생존과 도약의 기회를 찾아나가도록 합시다.

한기가족 여러분

우리 한기의 도전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 패러다임(Paradigm) 변화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지진에 대한 공포때문에 원전이 위험한 존재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1년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기술입국의 사명감을 안고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한기 존립의 근거가 위협당하고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아 억울하다고 푸념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최고의 기술그룹으로서 엔지니어적 양심과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원전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더욱 매진합시다. 한기의 침착한 대응과 불철주야 기술혁신에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는 말처럼 한기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약 8,000억원대의 신규수주를 거두었습니다. 연말까지 1조원대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본부/단장을 중심으로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리스크(Risk) 관리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기가 의욕적으로 시행한 해외 EPC사업의 사후관리는 물론 경영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도 모든 직원의 슬기가 결합되는 협력(協力)의 미덕(美德)을 발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한기 직원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도전을 바탕으로 한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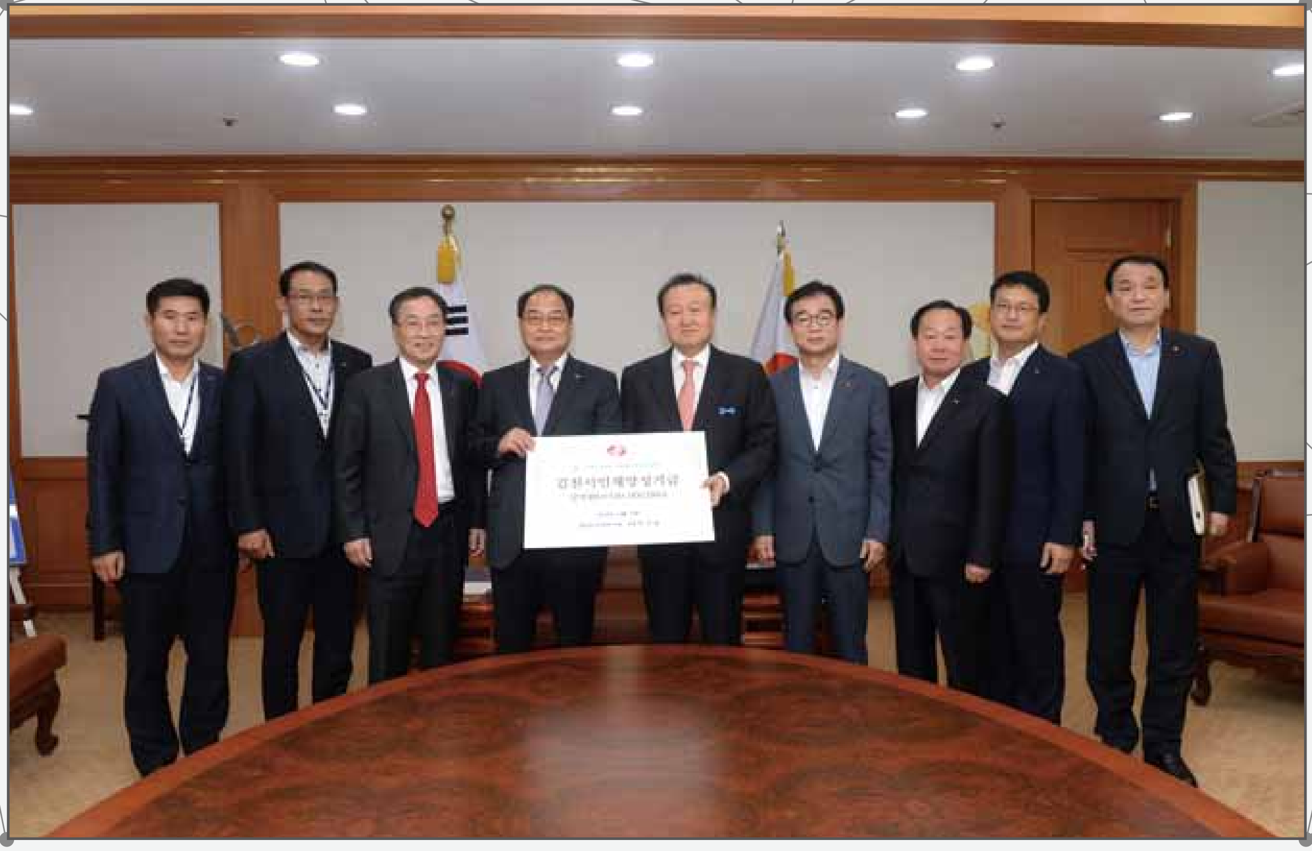
사장 박 구 원

창립 41주년 맞이하다

- 41년의 발자취 돌아보며,
  기술혁신으로 국민신뢰 다짐

회사는 9월 29일 회사 대강당에서 박구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1주년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개회, 국민의례, 41년 발자취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사가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식후 행사로 김천시립합창단의 공연도 이루어져 축하분위기를 한층 고취했다. 박구원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사 창립 4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기술혁신 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설계회사인 우리 회사가 원전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우외환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올 연말까지 1조원대 이상의 수주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필사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지역인재 양성에 동참

-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에 기금 1억원 전달

박구원 사장은 10월 13일 김천시청에서 박보생 김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에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김천지역의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박구원 사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학사업으로 김천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보생 시장은 '한전기술이 지역의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한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투명한 장학사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2015년에도 인재양성기금 1억원을 전달하였으며, 발전설계 CAD인력 양성사업, 김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 기증, 사옥 내 열린도서관 개방 등 인재양성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UAE 나와에너지 (Nawah Energy)와 협력관계 구축

우리 회사와 아랍에미리트 나와에너지(Nawah Energy)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회의가 9월 6일 대전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박구원 사장과 나와에너지의 무하메드 사후 알 수와디(Mohammed Sahoo Al Suwaidi)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양사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사는 바라카(Barakah)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장기 협력 체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바라카 원전 건설현황에 따른 기술 지원 방안 △바라카 가동원전 장기설계용역 참여 방안 △공동 R&D 및 인력양성 방안 등에 대해 양사간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나와에너지는 바라카 원전 1~4호기를 운영하는 원전사업자로 UAE 원자력공사(ENEC)가 원전운영 효율성을 위해 설립한 원전운영 전담기구이다. 우리 회사는 나와에너지와 바라카 가동원전 장기설계용역 참여를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부다비 현지에서 두 차례의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양사는 바라카 가동원전 장기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속함은 물론, 국제수준의 우리 회사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나와에너지 직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청년인재 채용설명회 참가

- 2016년 「1기업 1인 더 채용하기」 경북형 산·학·관 김천시 일자리 박람회

회사는 경북지역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9월 28일 오후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장 면접 25개사와 구직자 1,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취업 지원관 △현장 채용관 △소통체험관 △홍보관 △진로 상담관 등이 운영되었다. 우리 회사 인사담당자가 현장에서 취업준비생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절차, 인턴제도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회사는 2015년 8월 경북 김천으로 이전 후 경북지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김천지역 일자리 9.5%* 이상 증가 등 경북김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6월에 기술·연구분야 58명, 사무분야 12명 등 신입사원 70명을 임용하였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체험형 인턴을 약 900여명 모집하여, 12월부터 2개월간 인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 전기, 계측, 기계, 토목, 건축, 사무분야 등을 대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30명 규모를 채용할 예정이다.

* 출처 : 2016년 4월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동향, 고용노동부(8.22)

함께하는 청렴윤리
신뢰받는 한국전력기술

이동근 상임감사,
경영관리본부 부서장과 대화의 장 실시

이동근 상임감사는 9월 1일 경영관리본부 부서장과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 및 능동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직원과 스킨십 강화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방안, 민원신고시스템의 개선 및 활용성 강화, 협력업체 인력충원 절차의 개선, 수주감소에 따른 회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SNS를 통한 유언비어 유포 예방과 회사의 신문고 및 레드휘슬과 같은 공식 신고체계 활성화 등도 논의됐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비위행위 등 문제사항은 감사실로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의 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요청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사의 미래를 염려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화의 장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청렴문화 정착 및 능동적인 조직문화 구축 간담회 이후 2차 소통의 장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동근 상임감사는 연말까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열린 감사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함께하는 청렴윤리
신뢰받는 한국전력기술

김천시 및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간
청렴업무 교류·지원 협약체결

회사는 10월 21일 김천시 및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간 반부패·청렴업무 교류·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천시와 김천혁신도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들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공동 협력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청렴도 향상 추진방향·상호협력, 공동 협력사업 발굴, 공공비리와 부패관련 정보·자료 공유, 기관별 추진시책 인프라 지원'등에 대한 것이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청렴·반부패업무의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청렴윤리 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원전 초기사건 발생빈도 평가방법론개발 및 평가

원자력발전소 설계자는 발전소가 과도나 사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과도 및 사고해석을 수행하며, 인허가 기관은 이러한 해석 결과를 근거로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과도 및 사고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도출하고 사건의 발생확률에 근거하여 분류되는 사건분류와 사건선정, 허용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설정, 적용되어야 한다. 사건분류는 안전해석방법론의 근간을 이루는 기준으로 안전해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초기사건분류는 확률론적인 평가보다는 전문가 판단을 통한 결정론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국제기구 및 유럽의 경우 사건분류를 사건발생빈도에 따라 세분화, 정량화하고 있는 추세며 중대사고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기존의 설계기준초과사고까지도 고려하는 등 사건분류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사고분류방법 및 허용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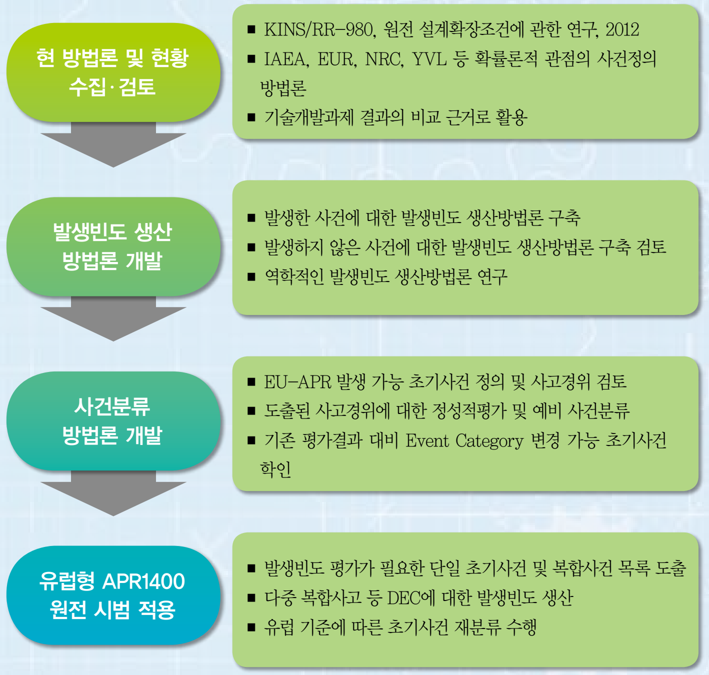
따라서 안전해석그룹에서는 국제적 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확률론적 방법을 이용한 초기사건평가와 사건분류에 관련한 '원전 초기사건 발생빈도 평가 방법론개발 및 평가'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도 기술개발과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원전초기사건 발생빈도 평가방법론

초기사건은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국내 규제기준에서는 초기사건을 예상되는 발생빈도에 따라 예상운전과도(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AOO)와 설계기준사고(Design Basis Accidents, DBA)로 분류하고 있다. 초기사건은 분류된 기준에 따라 각 사고의 허용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초기사건의 정확한 분류는 중요하며, 빈도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하였다.

평가방법	비 고
초기사건 빈도 평균	경험자료를 이용한 추정
베이지안 추정	■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의 빈도 추정 – 이산형 사전분포 추정 (Discrete Prior) – 공액형 사전분포 추정 (Conjugate Prior) – Jeffrey's Noninformative Prior ■ 사후분포 (Posterior Distribution) 계산
고장수목 기기고장률	기기 신뢰도 자료 이용
전문가 판단	초기사건 발생이력 없는 경우 사용
유사발전소 경험자료	신규 발전소에서 주로 사용

그런데 사고의 발생경험 및 경험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이 다르고, 한 가지 방법으로 빈도를 평가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빈도를 평가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빈도평가방법을 단정지어 정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 및 해외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서 적용되어 온 초기사건 발생빈도 평가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기사건 발생빈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기술개발과제에서 수행한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초기사건 발생빈도 평가는 크게 1)냉각재상실사고, 2)과도사건, 3)저압경계부냉각재상실사고 등과 기타 특수사건, 4)다중 증기발생기 세관파열로 구분하여 빈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 가상적인 설계기준사고로 현재까지 발생한 경험이 없으므로 전문가 판단기법을 적용해 파단 크기별 빈도를 추정한 NUREG-1829를 기반으로 NUREG/CR-6928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과도사건의 경우 냉각재상실사고와는 달리 국내 원전의 운전이력이 축적됨에 따라 최근 20년간 국내 가동원전의 사건발생 이력과 미국 NRC에서 발행하는 Generic Data 카테고리에 따른 초기사건 빈도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저압경계부냉각재상실사건 등의 기타 특수초기사건은 발전소의 설계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많은 가정과 Generic Data를 활용하여 통계적 추정으로 평가하였다. 전 세계 원전에서 아직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다중 증기발생기 세관파열의 경우 그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관점에 입각하여 수행된 연구 결과와 통계적 추정 방법에 의해 다중 증기발생기 세관파열의 발생빈도를 평가하였다.

사건분류

원전에서 발생하는 초기사건 분류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사고분류체계 및 설계확장조건과 관련한 국내외 규제기준의 분류방법을 검토한 후, 기술개발과제의 사건분류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또한 초기사건발생빈도 산출 방법론을 기반으로 유럽요건에 적합한 사고분류체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된 초기사건들을 유럽요건에 따라 사건분류를 수행한 후 결정론적인 사건분류 결과와 비교검토하였다.

기대효과 및 향후 개발계획

기술개발과제 수행 결과는 향후 유럽시장 진출 시 기술적 근거 및 안전성 입증에 활용함으로써 수출형 원전의 새로운 기술적 선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중대사고 진입예방을 위한 DEC 대처기술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개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노형별 초기사건 평가 및 초기사건분류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확률론적인 방법을 통한 초기사건 빈도 평가는 가능하지만 사건분류는 확률론적인 방법과 전문가 판단을 통한 결정론적인 방법과의 조화가 필요하며 개발된 기술의 보완을 통하여 기술적 근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기사건평가 및 분류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계획 중이다. E&C

& And

도시 근교에 주말 농장을 하는 이웃이
오늘도 애호박 2개와 풋고추 한주먹이 든 까만
비닐봉지를 아파트 현관문에 걸어 두고 갔습니다.

농장이래야 겨우 열 평 남짓으로
일 년에 8만원의 세를 주고 얻은 땅입니다.
김장배추와 대파, 고구마와 땅콩까지
열 가지도 넘는 작물을 심었다고 자랑합니다.

난생 처음인 농사에서 인생을 배운다는
그들 부부는 적은 양의 농작물을 키우는데도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호미와 삽, 자잘한 농기구는 물론이고
적당한 햇빛과 물, 기름진 땅과
끊임없는 관심, 그 중에도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해선 잘 썩힌 거름으로
땅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첫 번째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밑거름은 멋진 태양과
맑은 빗물처럼 아름답다 할 수가 없습니다.
썩어 냄새나고 묵혀진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썩어가는 과정도 발효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가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보낸 시간도 살며 흘린 땀과 노력의 아픔도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한 숙성의 단계이지
결코 헛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그들은 작은 땅에서 큰 것을 배웁니다.

신입(인턴)사원 교육을 마치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건축공학을 전공할 때부터 꼭 일해보고 싶은 목표였다. 한국전력기술의 신입(인턴)사원으로 입사하기 전, 아파트 신축현장 현장 관리자로 있으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의 어려움을 몸소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효율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큰 원가절감이 가능한 것을 경험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대형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에서 사업관리 업무를 배우고, 사업 전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잊지 않고 한국전력기술의 사업관리기술그룹에서 하나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문경 STX 연수원

출근 첫날,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을 한국전력기술의 일원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문경 STX 연수원으로 보냈다. 짜임새 있는 교육 과정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회사에 대한 역사, 직장에서의 예절, 창의적인 기획과 문서작성 등 유용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사가를 통해 알게 된 사훈 "熱心히 工夫하며, 誠實하게 일하자"를 통해 한국전력기술이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시키기 위해 학구적이고 열정적인 문화의 업무 환경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 만난 40기 동기들과 팀워크를 배울 수 있는 과정도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같은 조 또는 다른 조원들과 함께하는 과제들이었다. 동기와의 동료애, 과제에 대한 업무 분담, 소통의 어려움, 협동심과 책임감 등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OJT 교육

연수원 교육 이후, 사업관리기술그룹 플랜트사업 설계공정에 속하면서, EPS(Engineering Planning Schedule) 소속의 선배님들이 설계일정을 관리하는 일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바쁜 업무 중에 틈틈이 업무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업무를 찾아 넘겨주셨던 선배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업무를 배우는 것도 즐거웠고, 사업관리기술그룹의 일원으로서 업무의 흐름을 읽고 신입사원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가면서 협력과 이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OJT 교육은 사업관리기술그룹의 역할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한국전력기술의 역사를 함께해 오신 선배님들의 교육을 받으며 사업관리기술그룹에 대한 자부심과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먼 훗날 나 또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후배들을 맞이하고 싶어졌다. 특히 선배님들의 경험을 들으며 느낀 것이 있다면 미래에 그분들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업무를 배우며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할지 찾아가는 것이 지금 주어진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2주간의 직무입문교육은 원자력과 화력사업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각 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교육이었다. 특히, 사업 전체의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업관리기술그룹의 일원으로서 더욱 뜻깊은 교육 기회였다. 바쁜 교육 일정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육이었다. 그래서 늦게까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느라 피곤해도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도 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틈틈이 사내학술 및 교육에 참석하여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사업관리기술그룹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직무에 대한 비전은 신입사원들이 입사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직무에서의 성취감과 전문가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했다. 신입(인턴)사원 교육의 5개월, 길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설계와 시공, 공정 등을 아우르는 사업관리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또한 "If you really want to do something, you will find a way. If not, you will find an excuse."라는 말을 명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항산항심(恒産恒心)의 마음가짐으로 한국전력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Energy Solution Partner"로 도약하는데 함께 도전하리라 다짐한다. E&C

달콤 촉촉한 자두는 맛있어!

(경북드림밸리 임직원, 가족초청 자두따기 체험행사를 다녀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5살 별, 2살 재하와 함께 김천에 정착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다. 김천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자연을 풍요롭게 느끼고 즐기는 것이다. 지난 1년간 가족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연을 만끽하고 텃밭도 가꾸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러던 차에 '경북드림밸리 임직원, 가족초청 자두따기 체험행사' 참가 안내문을 보자마자 1초의 망설임 없이 신청을 했다. 4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참가자 명단에 우리 가족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둘째 아이가 열이 나는 바람에 별과 둘이서만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별과 알콩달콩!

7월 중순, 무더운 날씨가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우비와 장화를 챙겨야 했다. 체험당일 어김없이 비가 내리면서 기상청에 대한 불신감(?)이 조금은 해소되었다. 지정된 버스를 타기 위해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별은 전광석화처럼 재빠르게 어린이집 친구를 향해 달려갔다. 별의 친구 옆에 서 계시는 아버님과 가볍게 목례를 나누었지만 회사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다. 어디였을까. 가물가물 잡힐 듯 잡힐 듯 생각이 나지 않았다. 별이 회사 어린이집을 다닌 후로는 어쩌면 퇴직할 때까지 서로 무심하게 지낼 수 있었던 타 부서의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고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김천 이전 후 얻게 된 큰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입에 새콤달콤!

버스에 오르니 김천시에서 준비해 온 간식과 음료 그리고 자두를 담을 수 있는 박스를 받고 약 30분 정도 이동하였다. 우리가 도착한 구성면 미평리는 송림산 아래 자리잡은 야산 마을로, 앞으로는 감천이 흐른다. 이 마을은 쌀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먹을 정도로 많이 생산되는 땅이어서 마을 이름이 미평(米坪)이라 한다.

버스에서 내려 약 10분 정도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농장에 도착할 수 있지만 친절한 농장주인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트럭으로 데려다 주었다.

농장에는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과일 자두가 생각보다 훨씬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거기에다 윤기 있게 빗방울까지 송송 맺혀 너무나 탐스러웠다. 나무에 열린 탐스러운 자두를 참지 못하고 바로 하나 따서 한 입 가득 베어 무니 입안 가득 퍼지는 새콤달콤 과즙에 깜짝 놀랐다.

단연 지금껏 먹어보았던 자두 중에 가장 맛이 있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인다. 평소 껍질을 뱉어내던 별도 그냥 오물오물 씹어 삼킬 정도였다. 그렇게 자두를 한입씩 크게 베어 물고 힘을 내서 누가 더 크고 맛있는 자두를 따는지 별과 내기를 하며 농장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녔다. 어느새 배부 받은 박스 두 개를 가득 채우고도 아쉬워서 손에 하나둘씩 더 들고 다시 트럭을 타고 내려왔다. 땀인지 비인지 옷과 신발은 이미 다 젖었지만 가득 담긴 자두를 보니 뿌듯했다.

아름다운 직지문화공원

다시 버스에 올라 고즈넉한 산사의 여름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천년고찰 직지사 앞에 마련된 식당으로 향했다. 오전에 자두농장을 갔던 길과는 다르게 산을 넘어가는 꼬불꼬불하고 한적한 시골길에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과 비 내리는 풍경이 조화롭고 평온하게 다가왔다. 식당에는 맛있는 산채비빔밥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평소 나물을 잘 먹지 않는 아이도 맛이 있었는지 아님 자두 따느라 허기져 있었는지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모습을 보니 왠지 흐뭇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행사 담당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 김천생활에 유익한 정보도 많이 듣고, 막걸리도 한잔 더 마실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산책하기 좋은 직지문화공원도 둘러보고 마지막 행선지인 김천 자두·포도 축제 장소인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향했다.

제7회 김천 자두·포도 축제

큰 도시에 거주할 때에는 어떤 축제를 가도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참가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김천에 내려와서는 가족들과 이런저런 축제를 찾아 다니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 물론 갈 곳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지방 축제에 가면 시골의 따뜻하고 정겨운 인심을 항상 느낄 수 있어 왠지 타임머신을 타고 살아보지 못한 과거로 온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이번 제7회 김천 자두·포도 축제에서도 여러 특산물을 넉넉히 맛볼 수 있도록 인심이 넘쳐났고 아이들을 위한 여러 시설도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마련된 무대에서 꽤나 수준 높은 전자바이올린과 마술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었는데 별이 무척 좋아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장 맛있어 보이는 포도 한 박스를 사 들고 귀가하는 버스에 올랐다. 비록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가족 모두가 함께 하지 못해 조금은 아쉬웠지만 자두따기 체험을 통해 김천의 참맛을 느낄 수 있었고 아름다운 농촌 풍경과 시골의 흡족한 인심, 농촌 생활에 대한 친숙함을 경험했다. 또한 제7회 김천 자두·포도 축제에서의 자두·포도 시식회, 김천 음식체험, 물놀이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체험하면서 새로운 고향 김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E&C

월성현장

한마음 컬처데이 행사를 마치며

월성현장사무소는 2016년도 컬처데이(Culture Day) 행사를 계획하면서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최대식 소장님께서 걷기 운동을 하면 심장기능이 활발해지고 폐활량도 늘어난다며 발전소에서 가깝고 경관이 아름다운 '해파랑길'을 추천해 주셨다. 월성현장 식구들의 만장일치 합의(?) 하에 수준 높은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컬처데이 행사 계획표를 짰다.

Culture Day

감포 해파랑길 걷기(전촌항→용굴→감포항→송대말 등대)

해파랑길은 '동해의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길동무 삼아 함께 걷는다'는 뜻이다.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을 시작으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총 10개 구간 50개 코스, 거리 770km의 걷기 길이다. 전체 구간을 완주하려면 꼬박 한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해파랑길은 국내 하나뿐인 유일한 해안 종단길이다. 우리는 해파랑길 중에서도 경주의 감포 깍지길 구간 일부를 걷기 코스로 정했다. 이 코스는 해파랑길 걷기 코스 중에서도 가장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감포(甘浦)의 감(甘)은 달다는 뜻으로 단맛은 모든 맛을 받아들이고 화합한다는 뜻이다. 경주 푸른 바다의 비경 전촌항에서 출발하여 용굴을 지나 감포 해변을 거쳐 감포의 일출명소 송대말 등대까지 이르는 길은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산책 코스로 해파랑 길 11, 12코스가 중첩되는 구간이다.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죽어서도 용(龍)이 되어 동해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긴 문무왕의 수중릉인 대왕암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관이 수려한 감포항이 있다. 해송과 해국이 아름다운 용굴과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감포항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활어회 직판장이 있어 다양한 농수산물도 구경할 수 있다.

6월 23일 컬처데이 행사 출발지인 전촌항에서 다 같이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전촌항에서 탐방로 입구까지 가는 동안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에 모두들 이마에 구슬 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바다내음 맡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걸었다. 탐방로에 들어서자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왼쪽으로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 오랜만에 사무실을 벗어난 직원들은 반가운 벗을 만난 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여러 화제로 대화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탐방로에서 10여 분 정도 들어가면 해안 초소 아래쪽에 감포 전촌항 용굴이 있다. 용굴은 작년만해도 군사보호구역으로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으나 최근 들어 나무 계단을 설치하여 탐방로를 마련해 낮 시간 대에만 개방하고 있다. 용굴은 동서남북을 지키는 네 마리 용이 살았다는 곳으로 사룡굴, 단용굴이라고도 불리는데, 물에 사는 뱀이 변해서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다. 주변이 해안 절벽과 절경을 이루고 있어 솔숲 사이로 감포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있으면 심신이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다.

해국이 지천으로 뒤덮여 있는 천혜의 용굴 주변은 넘실거리는 명쾌한 파도 소리와 시원한 바람 덕분에 땀도 식히고 더위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용굴을 휘감고 넘실거리는 바닷물이 밀려왔다 잦아드는 모습이 장관이어서 가만히 눈을 감아 보았다. 나무 계단으로 만들어진 탐방로를 지나고 나면 감포항에 다다른다. 감포항은 1937년 읍으로 승격될 만큼 일제 강점기부터 번창했던 아름다운 항구로 규모가 아기자기하면서도 드나드는 어선이 많은 동해 남부의 중심 어항이다. 지금도 일본식 건물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바다를 바라보며 재래시장이 들어서 있고 해안도로에는 수산물시장과 횟집, 민박집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 옆으로는 작은 어촌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집집마다 생선을 말리기 위해 손수 손질해서 널어놓고 걸어놓은 모습이 정겨웠다. 또한, 감포항 방파제는 동해 일출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로, 특히 새벽에 들어오는 오징어 배와 일출이 만들어 내는 멋진 광경은 참으로 가경이라고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왔다.

감포항의 북단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동해 망망대해를 지키는 송대말 등대가 자리 잡고 있다. 감포항 인근 해역에는 암초들이 길게 뻗어 있어 작은 선박들의 해난사고를 방지하고 암초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1933년에 등간을 설치했다. 이후 감포항 이용 선박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감포항 북쪽 송대말에 1955년 무인등대를 설치했다. 지난 2001년에는 등대를 종합정비하면서 신라시대를 대표하며 문무왕의 은혜를 기리는 의미를 지닌 '감은사지 3층 석탑'을 형상화하여 건립된 독특한 등대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등대 내부에는 등대 및 바다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해 두는 전시실을 마련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등대보다 더 시선을 잡는 것이 있으니, 등대 아래의 풍경인데, 인공적으로 바닷물을 막아놓은 듯한, 바위의 모양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족관을 형성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송대말은 '소나무가 펼쳐진 끝자락'이라는 뜻이다. 등대 주위로 수령 300년~400년 정도의 소나무 숲이 무성한데, 바다 바람의 영향으로 소나무들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등대 가까이에 올라서면 소나무 그늘에 바다 바람이 더해져 시원할 뿐만 아니라 탁 트인 바다와 항구를 드나드는 배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인다. 우리는 여유 있는 분위기에 흔흔히 취해 있었다.

족구대회

해파랑길 도보 탐방을 끝내고 울산 북구 소재의 체육공원으로 이동했다. 그 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 족구를 즐겨 해왔던 실력으로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진행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듯이 공 하나를 주고받으며 함께 땀을 흘리니 동료 사이의 우애가 더욱 돈독해진 것 같다.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운동을 해서인지 다들 몸이 무거워 보였지만 경기 후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는 컬처데이 행사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뒤풀이

족구를 마무리하고, 식사와 함께 동료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한 뒤풀이에서는 직원 모두 평소의 현장 생활과 인생철학 등 마음에 품은 생각을 털어놓고 논의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월성현장사무소, 파이팅! E&C

Communication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로 외칩니다.
'양여준씨 계세요?'
호칭 때문에 집안에선 한바탕 웃음꽃이 핍니다.
양여준씨는 태어난지 열흘밖에 안된 신생아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헷갈린다고 하는 호칭이 이모라고 합니다.
이모 하고 불렀는데 식당 아줌마가 대답하니 그럴 만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는 늘 호칭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향우회부터 동창회나 취미생활까지,
모임의 숫자가 주름살처럼 자꾸 늘어납니다.
얼굴 생김 제각각 이듯 모이는 사람들의 성격 또한 다양합니다.
그들 중엔 호칭이나 나이로 무게 잡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날도 한참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고조 되더니
최고 연장자가 화장실 가는 척하며 슬며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모임이 끝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후일담에 의하면 취중에 '왕 형님'이라 부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취미가 같아서 만든 모임이므로 부르는 호칭들이 다양합니다.
거의가 전직인데도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처럼
국장님, 사장님, 선생님, 원장님, 의원님, 박사님
적당한 호칭이 없을 경우 형님에 아우님까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심정을 헤아려 대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잘나가던 시절의 직위로 불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의 위치보다 높여서 불러주는 호칭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경하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음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왕 형님' 빨리 마음 풀어야 겠어요.

가을, 숨겨진 민통선의 비경 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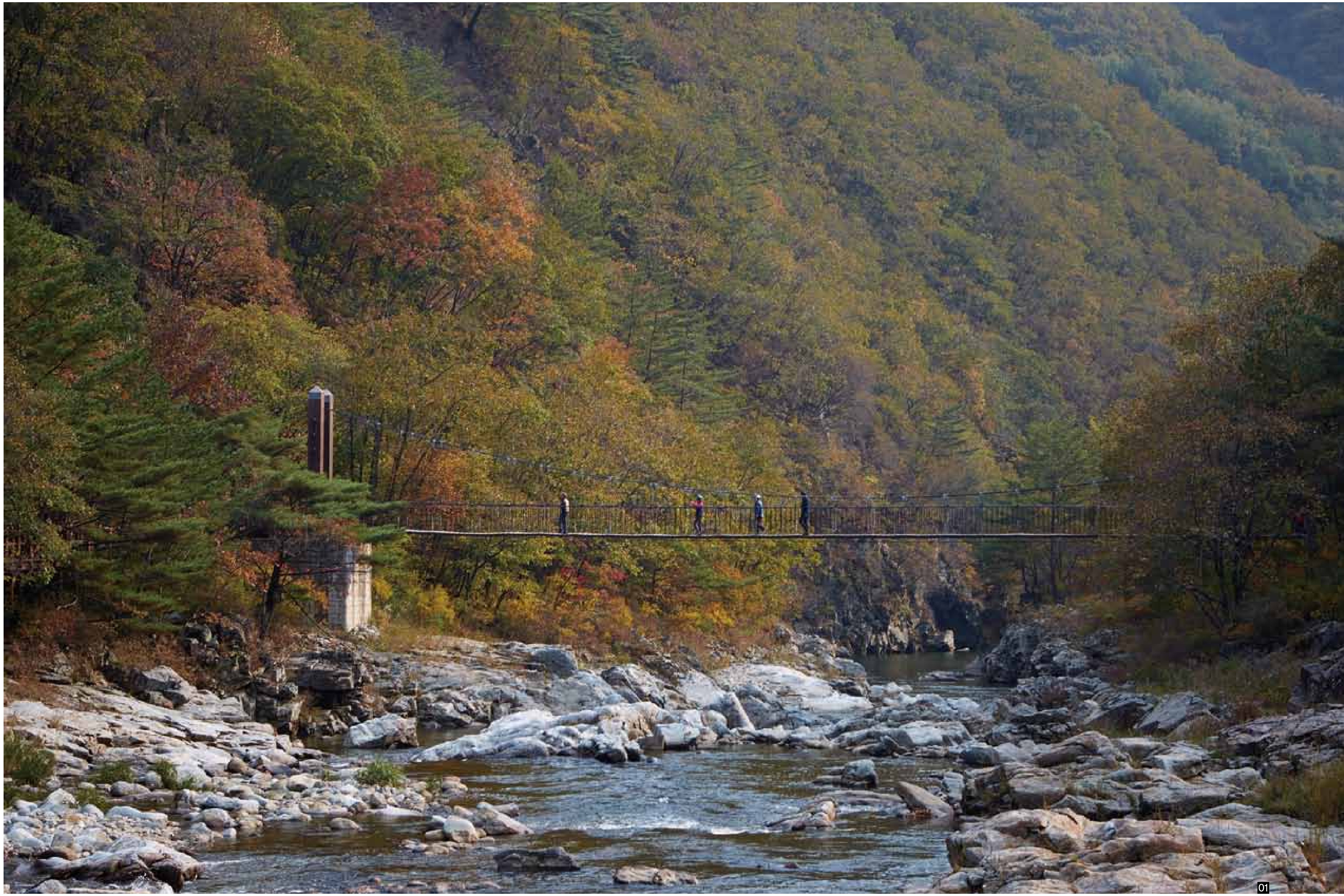
한국전쟁 이후, 양구는 강원도 내륙의 북쪽 끝에 자리한 한지였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 이르는 155마일 휴전선의 딱 중간지점. 한국전 당시에는 치열한 전투가 펼쳐진 격전지였고, 전후에는 군부대가 밀집된 삼엄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즈음의 양구는 감춰졌던 문을 열며 여행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여전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 청정한 풍광, 분단 후 60여 년 동안 간직되어온 비경들을 만나러 가을 양구로 떠나본다.

을지전망대와 펀치볼 둘레길

양구 땅의 네 개면 중 가장 북쪽에 자리한 해안면은 전체가 민통선 지역이다. 휴전선과 닿은 이곳의 산들은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유엔 고지, 크리스마스 고지 등 심상치 않은 이름을 달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처절했던 싸움의 흔적으로부터 기인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것이 펀치볼 전투다. 총알이 모두 소진되도록 싸우고도 승부가 안나 육탄전이 펼쳐졌다. 하지만 정작 유명한 것은 이곳의 특별한 지형이다. 해안면 전체가 화강암분지인 이곳은 가칠봉(1,242m), 대우산(1,178m), 도솔산(1,304m) 등 평균 1천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쌓여 오목한 분지를 이루고 있다. 한국전쟁 때 외국의 종군기자가 이곳의 지형을 보고 거대한 화채그릇 같다고 하여 펀치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북쪽 능선에 자리한 을지전망대(1,409m)에 오르면 이 화채그릇의 모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다른 한편은 긴 철책으로 둘러쳐


01

02

03

04

05

06

져 있고, 북한 땅이 지척으로 보여,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다. 긴박감이 감도는 이 펀치볼에 둘레길이 만들어졌다. 외곽의 능선과 숲을 걷는 길로 모두 네 개의 코스 72Km 구간이다. 펀치볼과 DMZ을 조망할 수 있는 을지전망대에 오르려면 민통선 초입의 통일관에서 출입허가를 받은 후 들어갈 수 있다. 둘레길은 'DMZ 펀치볼 둘레길 방문자 센터'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하며 반드시 가이드와 동행하여 둘러볼 수 있다. 매일 9시와 13시, 1회 100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양구군 해안면 후리 621번지/ 033-481-8565)

을지전망대 입장요금 3,500원(제4땅굴 관람, 전동차 이용료 포함)

DMZ 펀치볼 둘레길 코스

1코스/ 평화의 숲길~수리골 능선 벙커(14km, 4시간 소요)

남방한계선에 가장 근접한 코스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흔과 와우산 자작 숲의 평화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

2코스/ 오유밭길(20.1km, 5시간 소요)

대우산 자락의 고원지대 황톳길을 걷다보면 산양서식지를 비롯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다양한 식생과 야생동물들의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다. 펀치볼 야생화 공원과 해안분지의 청정한 자연을 오롯이 느껴볼 수 있다.

3코스/ 만대벌판길(21.9km, 5시간 30분 소요)

국립 DMZ 자생식물원과 만대저수지, 졸참나무 군락지를 지나 대암산의 소능선과 계곡을 오르내린다. 소나무 조림지 아래로 펼쳐지는 만대평야의 풍광이 볼만하다.

4코스/ 먼멧재길(16.2km, 4시간 20분 소요)

후리 자작나무 숲을 지나 지뢰밭길을 통과하여 인제군과 경계를 이루는 산능선을 걷는다. 북녘의 금강산, 무산, 운봉, 스탈린고지, 남녘의 설악산, 접봉산, 향로봉 등을 조망하며 걷게 된다.

01 두타정에서 바라본 두타교 02 두타연 계곡의 한반도 모양 물길 03 두타교를 건너면 트레킹길이 이어진다 04 아늑한 산책길이 이어지는 생태탐방로 05 탐방로에 설치된 전쟁조형물 06 지뢰의 모형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탐방로 주변에 지뢰밭이 지천이다

적막강산에 숨겨진 비경, 두타연과 평화누리길

양구 방산면에 자리한 두타연 계곡은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고려시대 때 이곳에 두타사라는 이름의 절이 있어 두타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주오일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의 오지마을과 계곡들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지만, 이곳은 청정함을 간직한 원시계곡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두타연이 자리한 수입천은 우리나라 최대의 열목어 서식지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50여 년 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있었던 것이 잘 보존된 이유다. 민통선 출구인 이목정에서 출입신고서를 작성하고 3.7km 오르면 두타연이 나온다. 이 길은 비득안내소까지 12km에 이르는 DMZ 평화누리길이기도 하다. 좌우로 울창한 숲이 이어지는데, 도보로 걸으면 3시간이 걸리고, 이목정안내소에서 자전거를 렌탈하여 가면 70분 가량 걸린다. 온전히 트레킹이 목적이 아니라면 보통 이목정 안내소에서 차량으로 두타연주차장까지 이동하여 조각공원과 두타정, 생태탐사로, 두타교, 이목교를 경유하는 약 4km의 탐방로를 걷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타정 바로 아래로는 20여 미터의 병풍바위를 뚫고 형성된 폭포와 소가 있다. 생태탐방로 곳곳에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조각, 설치미술품이 설치되어 심심치 않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다만 곳곳에 지뢰위험을 알리는 철책들이 있는데, 탐방로 주변을 벗어나면 안 된다.

두타연 탐방 운영시간 : 하절기 9~17시(최종출입시간 16시) / 동절기 9~16시(최종출입시간 15시)
월요일은 휴관, 입장료 3,000원, 자전거 대여료 4,000원

07

10

11

한반도의 동서남북 끝자락을 기준으로 정중앙에 자리했다 하여 명명된 이곳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80cm 나스미스식 반사망원경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망원경들을 보유하고 있다. 천문대 옥상에는 별자리 체험장을 조성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천문캠프'는 공지 이틀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천체투영실에서는 우주와 지구, 과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물들이 상시 상영되고 있다. 가을철 별자리 관람시간은 20시부터 운영되며, 영상물 관람 후 천체관측실과 옥상에서 별자리 관람을 할 수 있다. 야간 별자리 관람을 위해 야영장과 숙박동도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DMZ의 자연생태를 엿볼 수 있는 양구생태식물원, 선사박물관, 백자박물관, 인문학박물관, 양구근현대사 박물관 등 자연과 역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

미술관 운영시간/ 9시~18시, 월요일 휴관, 입장료 3,000원
국토정중앙천문대/ 입장료 2,000원, 숙박동 평일 50,000원
주말 60,000원, 야영장 15,000원 E&C

양구의 다양한 전시관, 박물관 돌아보기

골이 깊은 첩첩산과 군사분계선이 자리하여 다소 황막하지만, 양구에는 다양한 전시관과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화가 박수근은 아마 양구출신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것인데, 그의 생가 터에 박수근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투박한 선과 원근법이 생략된 간결한 필체로 그린 그의 그림은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2002년 개관한 미술관은 기념전시관과 기획전시실로 나누어져 있고, 그의 그림 18점과 미공개 스케치 50여점,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자작나무 숲과 정원, 그의 그림 소재였던 빨래터, 묘소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가을을 만끽하기 더없이 좋다. 아이들을 동반한 여행이라면 양구 남면에 자리한 국토정중앙천문대도 양구여행의 필수코스다.

07 미술관 앞의 자작나무 공간 08 천체관람시설과 전시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09 한국전쟁 시 양구에서 벌어졌던 전투들을 설명하고 있다 10 통일관 앞에 자리한 양구전쟁기념관 11 기획전시실에서는 다양한 미술전시가 이뤄진다 12 박수근미술관의 박수근 동상

08

09

12

19세기 중반, 한반도에 잦은 지진이 일어나다 - 17년동안 14회의 지진

일기분류 : 생활일기
출　　전 : 임재일기(林齋日記)
시　　기 : 1845년 10월 22일 ~ 1860년 2월 16일
인　　물 : 서찬규
주　　제 : 마을과 서원, 공유와 교환
장　　소 :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울특별시

1845년 10월 22일, 오후에 지진이 있었다. 11월 15일에도 낮에 지진이 있었다.

1849년 1월 6일, 밤에 지진이 있었다. 12월 1일과 20일에 지진이 있었다.

1850년 1월 3일, 조모의 생신이다. 서찬규는 빈소에 제사를 드렸다. 새벽과 아침에 지진이 있었다. 1월 5일에도 지진이 있었다.

1851년 12월 15일, 입춘이다. 오후 늦게 지진이 있었다.

1854년 1월 10일, 사마재의 모임이 저녁 때 끝났다. 밤 9시경에 지진이 있었다.

1857년 2월 15일, 하양의 낙산(洛山)에 도착하니 날이 저물어갔다. 밤에 지진이 있었다. 8월 29일, 경백이 왔었는데, 점심 무렵에 지진이 한 차례 일어났다가 또 발생했다.

1860년 2월 16일, 저녁 10시 전후에 지진이 있었다.

◆ 조선시대 지진의 발생

임재일기에 따르면 대구에 14회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지진활동은 크게 구분하여 1905년에 인천에 지진계가 설치되기 이전의 역사지진활동(歷史地震活動)과 그 이후의 계기지진활동(計器地震活動)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지진들은 ≪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증보문헌비고≫·≪승정원일기≫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계기지진들은 일제시대에는 조선총독부 기상대에서 담당했다. 역사지진기록은 2년(고구려 유리왕 21)부터 시작되며, 삼국시대(2년~936년)에 105회, 고려시대에 171회의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1393년~1904년)에는 지진이 기록된 사료가 풍부하여 대략 1,63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05년부터 1999년말까지 발생한 계기지진 횟수는 대략 920여회에 달하고 있다.

역사지진에 의하여 추정되는 지진발생지역은 대체로 지진활동이 활발하였던 남부의 경상도·경기도·충청도·전라도 일대와 북부의 평안도 지역이다. 이 밖의 지역의 지진활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큰 규모의 지진들은 주요 단층이나 주요 지질구조의 경계면에서 발생하였다. 가장 큰 인명피해를 가져온 지진은 779년(신라 혜공왕 15)에 경주에서 발생하였으며, 집들이 무너져 100여 명이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보인다. 신라시대에는 당시의 수도인 경주 부근에서 큰 규모의 파괴적인 지진들도 10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망자를 발생시킨 지진도 4회 발생하였다. 서울 근처에서도 큰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하였는데, 백제에서 89년(기루왕 13)에 지진이 발생하여 땅이 흔들려 갈라지고 집들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조선시대인 1518년(중종 13) 7월 2일에 발생한 지진의 경우에는 담과 집, 그리고 성가퀴가 무너졌고 서울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집 밖에서 자면서 집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였으며 전국 8도가 모두 이와 같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1613년(광해군 5) 7월 16일에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으며 많은 담과 집이 흔들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진활동 중 특기할만한 점은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이례적으로 높은 지진활동이다. 이 지진활동은 외국의 저명한 지진학 교재에서도 언급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0년간 방출된 전 지진에너지의 거의 반이 이 기간에 방출되었다.

1905년 이후의 계기지진 중 가장 큰 피해를 준 지진은 1936년 7월 4일 지리산에서 발생한 쌍계사(雙磎寺) 지진과 1978년 10월 7일의 홍성지진이다. 이 지진들은 일본 기상청의 진도(震度) V에 해당하는 파괴적인 지진들로 반도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감지되었으며, 홍성지진의 경우 약 4억 원의 재산피해를 주었다. 쌍계사 지진으로 쌍계사 종무소(宗務所)의 천장이 무너졌으며, 주위 돌벽이 파손되었다. 또 산붕(山崩)이 일어나 산마루에서 큰 바위가 굴러 내려왔다. 홍성지진 때는 홍주성벽이 무너지고 김좌진장군기념비(金佐鎭將軍紀念碑) 비석이 치솟아 뒤틀어졌으며, 민가의 굴뚝과 담장이 무너지고 홍성여자중학교 건물의 벽이 심하게 갈라져 교사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0년간 홍성지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지진은 60여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성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안전대라고 믿던 국민의 고정 관념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지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되었다. E&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제보자

내밀한 정보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거론되는 것이 제보자의 의도와 속사정이다. 그는 왜 그 사실을 까발렸을까. 이 추측을 구체화하면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된다. 제보자는 무슨 불만이 있었을까. 그는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것일까. 여기에는 순수하게 '정의구현'만을 목적으로 한 공익성 제보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제보자를 공격하는 법

실제로 사람은 대체로 그렇다. 일부러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제보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거기에 어떤 의도와 속사정이 있으리라고 보는 대중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더 잃을 것이 없거나, 가만히 있다가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반격으로 선택하는 몸부림이 제보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제보로 공격을 받는 쪽에서는 제보자의 불순한 의도를 부각한다.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익성도 퇴색시키는 것이다. 제보자가 외부인일 때 기업은 그를 '블랙 컨슈머'로, 공공기관은 악성 민원인으로 몰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 자신들을 상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언론을 이용하려 하니 조심하라거나 참작해달라는 것이다.

제보자가 내부자일 때는 그가 조직 내에서 얼마나 골칫덩어리였는지를 강조한다. 대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일쑤고 근태는 엉망이었으며 다른 직원들과도 어울리지 못해 수시로 갈등을 빚는 인물이었다.'라는 식이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말하기 그렇지만"이라고 운을 떼며 슬쩍 흘리기도 하고 "사실 그 사람 말이지요."라며 대놓고 말하기도 한다.

스캔들에 묻힌 논란

고발성 보도로 곤욕을 치르는 쪽에서 세간의 관심을 분산시키기에 제보자의 부도덕성을 부각하는 것만큼 간편하면서 효과적인 방법도 없다. 제보자가 돈을 요구했다거나 빚에 시달린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목은 그쪽으로 쏠리게 마련이다. 결은 조금 달라도 40여 년 전 일본을 한바탕 뒤흔든 '니시야마 사건'을 그런 사례로 언급할 수 있다.

1972년 3월 요코미치 다카히로 사회당 의원은 정부 기밀을 폭로했다. 미국-일본 간 오키나와 반환 교섭 중 미국이 내야 할 군용지 복원 보상금을 일본이 대신 부담하기로 밀약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부인하자 요코미치 의원은 해당 문서 사본을 공개했다. 그 문서는 외무성 비밀 문건이었다.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유출 경로를 추적했다. 다카히로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마이니치 신문 니시야마 다키치 기자가 외무성 하스미 기쿠코 사무관을 통해 빼낸 것이었다. 검찰은 니시야마 기자와 하스미 사무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기소장에 두 사람이 불륜 관계임을 명시했다. 그 내용이 공개되자 수면에는 두 사람의 불륜만 남고 밀약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논란은 빠르게 가라앉고 만다.

기자라고 모를까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익을 얻기 위해 혹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언론을 지렛대로 쓰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기자들도 잘 안다. 어쩌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제보자를 하루 이틀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제보자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넓게 정의한다면 정보를 다루는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제보자를 상대하는 일이다.

기자들은 이제 막 기자가 돼 세상물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초년병 때부터 갖은 의도를 감추고 접근해 오는 제보자들을 상대하며 세상을 배운다. 제보로 알게 된 부조리로서 배우고,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조리를 감추려는 자들의 협잡과 다투며 배우고, 어느 순간(가끔은 너무 늦게) 반전처럼 드러나는 제보자의 의도에 뒤통수를 얻어맞으며 배운다. 그래서 훈련의 일환인지 제보는 젊은 기자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이 할 얘기가 있다는데 네가 한번 들어봐라, 하는 식으로 넘어온다. 그중에 쓸 만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상당수가 일방적인 주장과 개인적 불만을 쏟아내는 정도다. 이게 왜 기사가 안 되느냐는 식으로 막무가내인 사람도 적지 않다. 감시·도청당하고 있다거나 냉장고에 보관 중인 음료에 독극물이 주입되고 있다는 등 과대망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많다.

알아도 낚일 때가 있다

의심 많고 영리한 기자도 낚시성 제보에 당한 경험이 한두 번은 있다. 그러니 의심 많아질 수밖에 없다. 유심히 듣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 살핀다. 이런 직업으로 경찰, 검사, 판사, 기자가 있다고 언젠가 사석에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얘기한 적 있다. 누군가에게 타격을 주는 정보를 기자에게 순순히 꺼내놓는 사람은 아무래도 의도가 있게 마련이다. 제보가 적극적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기자들은 생각한다. 제보자 중에는 유독 노련한 사람이 있다. 제보 내용 중 무엇이 기사가 되는지, 왜 기사가 되는지를 명확히 짚어주는 사람들이다. 이들 상당수는 제보를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다. 보통 제보는 적극적인 사람, 절박한 사람, 해본 사람이 하게 돼 있다. 노련한 제보자는 도움이 되는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감춰진 의도에 기자가 낚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남성의 제보로 비교적 전문적인 영역을 취재한 적이 있다. 70대인 제보자는 그 영역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였다. 질문에 막힘없이 설명할 정도로 해박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는지 이름과 소속,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알려줬다. 제보는 어느 기관에서 도입한 장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첫 보도 후 그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제보를 해왔다. 해당 장비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엔 선명도가 떨어졌다. 몇몇 기관이 경쟁 입찰에 붙이고도 결함 있는 제품을 선택했는데 거기엔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였기 때문이었다. 결함 발생 사실과 의미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처음과 성격이 달랐다. 취재는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제보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장비를 도입해 쓰는 기관들의 해명은 납득할 만했다. 제보자는 몇 가지 정황을 늘어놓으며 보도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옅은 개연성만으로 기사를 쓸 수는 없었다. 정황이 보여주는 개연성에도 급이 있다. 그럼에도 제보자는 집요하게 연락해왔고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했다. 첫 보도 전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그는 문제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의 경쟁사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제보 의도와 보도 가치

제보를 받는 입장에서 그 의도와 제보를 하게 된 사정을 파악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제보 의도에 따라 정보가 은폐되거나 오염 또는 각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보 의도나 속사정이 언제나 보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제보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만 보도해야 한다면 보도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가 생계형 파파라치에게 신고 포상금을 주면서 그들이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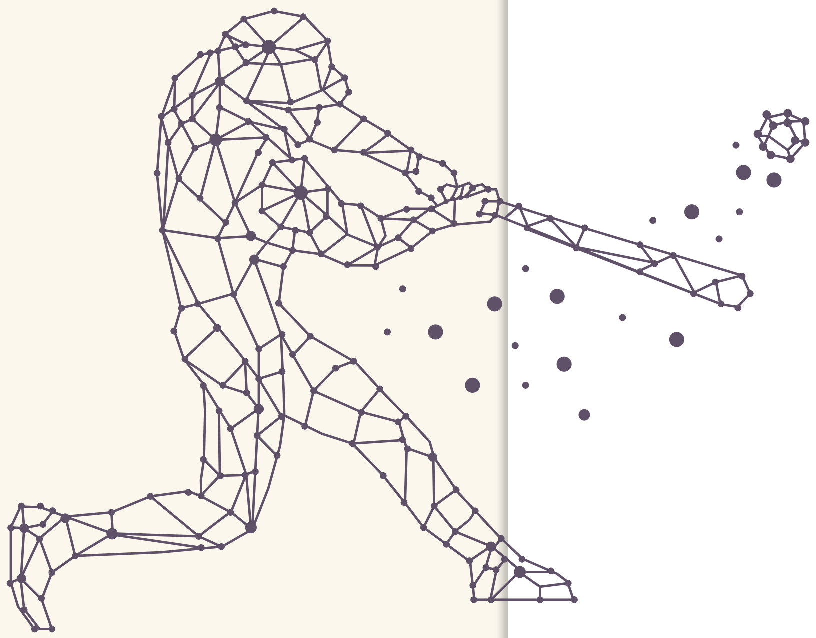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언론도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그 사실 공개에 공익성이 충분하다면 보도한다. 제보 의도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품질 불량 사실을 폭로한 내부자를 놓고도 그의 신변에 대해 여러 말이 나돈다. 그가 왜 제보를 했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결함 여부와 은폐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가 면밀히 진행되길 바랄 뿐이다. E&C

갑작스런 어깨통증,
자세와 체형에도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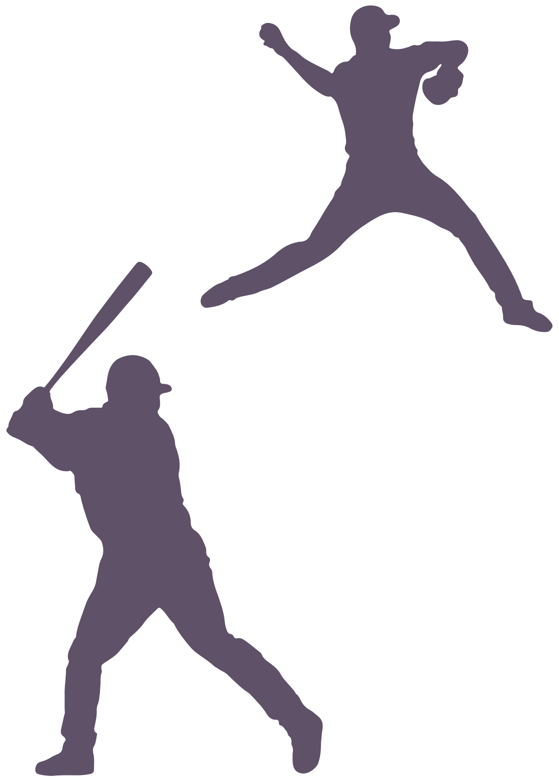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계절엔 야외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야구나 테니스, 배드민턴 등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운동을 하는 경우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병원에 가면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진단 받기도 하고 회전근개염, 회전근개파열 또는 오십견으로 진단 받기도 한다. 각각의 진단명은 증상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원인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우선 어깨 충돌증후군은 어떠한 이유에선지 어깨 관절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어깨를 움직일 때 관절 안의 구조물들에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손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좁아진 관절 공간 안에서 어깨를 움직일 때 쓰이는 힘줄이나 인대와 같은 구조물들의 미세손상이 누적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어깨 공간, 정확하게는 견봉하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원인으로는 회전근개나 전거근과 같은 근육들의 기능이상이 대부분이고 드물게 선천적인 이유로 견봉하 공간이 좁아져 있는 경우도 있다.

회전근개염은 어깨를 움직일 때 쓰이는 주요한 근육인 회전근개의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등 4가지 근육을 한꺼번에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이 네 가지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복잡한 어깨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무리 없이 팔을 쓰게 된다. 어깨는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만큼 구조가 취약하고 복잡하므로 어느 한 근육의 기능 이상이 오면 다른 근육으로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회전근개파열은 보다 심한 상태로 회전근개의 힘줄에 열상이 있거나 끊어져 있을 때 진단을 내리게 된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에 석회가 끼거나 관절 조직의 퇴행으로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이 완전히 망가져서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히 힘줄에 혈액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난다. 실제로도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쉽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정확한 진단은 근육기능검사, 초음파, MRI, 엑스레이를 통해 내리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어깨 통증이 쉽게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열심히 치료를 받아도 쉽게 재발하고 또 무리한 동작이나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세와 체형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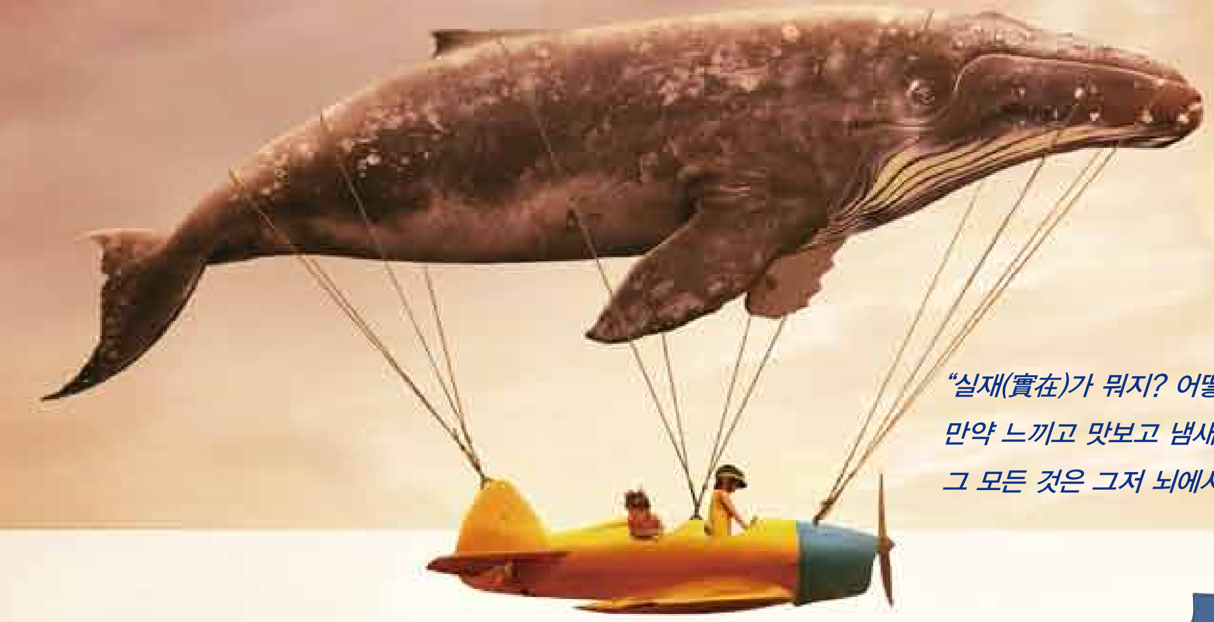
어깨 통증은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것보다 변형된 체형에서 비정상적인 어깨의 움직임이 지속되어 생기는 것이 보다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어깨 통증 환자의 자세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등이 구부정하거나 어깨뼈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자세가 굳어지면 정상적인 어깨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어깨 관절에 미세한 손상을 누적시키게 된다. 평소 무리하게 어깨사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깨의 힘줄이 끊어져 있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는 위와 같은 잘못된 자세가 그 원인일 수 있다.

한 번의 손상으로 어깨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운동에 의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어깨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변 조직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의 움직임을 정상화하기 위한 체형을 바로잡는 것이 근본치료가 된다.

환자들은 처음 어깨 통증이 나타날 때 단순히 근육의 뭉침 정도로만 여기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또 초기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통증이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초창기 어깨 통증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통증이 시작될 때는 이미 구조와 기능의 문제가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통증은 어깨 근육의 기능저하, 어깨 움직임의 비정상 패턴이 오랫동안 굳어진 다음에야 발생하게 된다. 처음 어깨 통증을 느꼈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의료진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통증 개선과 자세 및 체형의 문제까지도 고려해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E&C

가상 공간에서 모이는 소셜 미디어 시대가 열린다



"실재(實在)가 뭐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만약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보는 것들을 실재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그저 뇌에서 받아들인 전기신호에 불과해."

1999년에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온 영화 '매트릭스'에서 전설적 해커였던 모피어스가 한 말이다. 이 영화 속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와 똑같이 만들어낸 가상현실 세계를 살아간다. 어쩌나 사실적인지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이 가상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사실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이 추구하는 원래 목표가 매트릭스와 같은 '원격현전'이다. 원격현전이란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조성한 어떤 환경 속에서 실재하고 있음을 경험한다는 의미다.

많은 언론들은 2016년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산업의 원년이라고 보도했다. 그만큼 가상현실과 관련한 기술이나 디바이스들의 출시가 풍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포문을 연 대표적인 행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였다. 이 행사의 주인공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가 아닌 VR 기기였다.

한국 기업만 예로 들어도 삼성은 기어 VR과 4D 의자로 360도 입체 영상을 경험할 수 있는 'VR 4D 상영관'을 운영했으며, LG는 360도 VR 콘텐츠를 공개해 화제가 됐다.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몰린 부스는 단연코 VR 체험 코너였다.

이번 MWC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VR이 접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행사에 참석한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역시 "VR은 차세대 플랫폼이다"라고 말하며 'VR 대세론'에 힘을 실었다. 사실 VR 산업에 기업의 미래를 걸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페이스북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 'F8 2016' 행사에서 10년 로드맵을 발표한 페이스북은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향후 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플랫폼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꼽았다.

즉 향후 10년은 모바일 VR, 소셜 VR과 같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더욱 진보된 기술력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 마크 주커버그는 가상 및 증강현실 서비스들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이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2014년 3월, 페이스북이 20억 달러라는 거액에 오큘러스를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큘러스 리프트를 개발한 오큘러스는 VR의 선봉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이다. 오큘러스 리프트는 팔머 럭키라는 청년이 2012년에 개발한 VR 장치로서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해 그에 맞는 VR 콘텐츠를 보여주는 헤드셋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VR 헤드셋 디스플레이의 가격이 약 1만 달러에 달했으나 2013년에 출시된 개발자 버전의 오큘러스 리프트의 가격은 299달러에 불과했던 것. 가격의 벽이라는 한계에 부딪쳐 있던 VR 기기에 대중화라는 새로운 길을 낸 것이 바로 오큘러스 리프트였다.

지난 3월 페이스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식 버전의 오큘러스 리프트를 599달러에 출시했다. 예상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기대감이 주춤하긴 했으나 게임을 좋아하는 열성 팬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이 VR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래의 소셜 기능이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글과 사진만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대신 하나의 가상 공간에 모여 함께 식사도 하고 토론도 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보통 VR 디바이스라고 하면 머리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쓰고 시각과 청각만으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단순한 방식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엔 온몸으로 가상현실을 느낄 수 있는 패키지 형태의 시스템들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인 'AxonVR'이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가상현실용 수트와 공중에 뜨는 형태의 외골격 시스템을 조합해 개발 중인 신개념 VR 시스템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시스템은 외골격에 의해 몸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수트가 제공하는 가상현실을 통해 산을 오르거나 운동장을 달리는 등의 상황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VR 영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경기 장면을 고화질 360도 VR 카메라로 촬영해 5세대 이동통신 시범망 등으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선수가 착용한 헬멧에 초소형 카메라와 데이터 송신기를 달아 선수 시점에서 촬영한 중계 화면도 앱으로 생중계될 계획이다. 또한 스키점프나 스노보드 등의 경기장을 VR 시뮬레이터로 구현해 일반인도 평창올림픽 코스를 원하는 방향과 각도에서 가상체험 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디지-캐피털(Digi-Capital)이 올해 초에 발간한 '2016 VR·AR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VR과 AR에 투자된 자금 규모는 6억8600만 달러(약 8200억원)에 이른다. VR과 AR에 대한 투자액은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작년 4분기 투자액은 전년 2분기의 6배에 달했다. 2020년에는 기기 보급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콘텐츠 및 플랫폼의 확산으로 VR과 AR 시장의 매출 규모가 1200억 달러(약 144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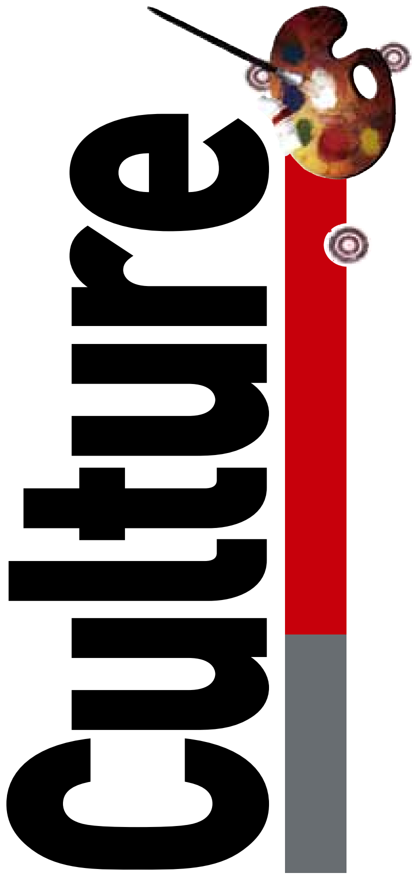
VR이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물건과 공간을 말한다면,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실제의 현실세계를 배경으로 가상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AR은 구글 글래스처럼 현실에다 새로운 가상의 물체나 정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

이처럼 VR과 AR은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일 범주로 보는 경향이 크다. 시장조사 기관들이 VR과 AR을 합쳐서 전망치를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민간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의 CEO인 엘론 머스크는 최근 공개 석상에서 V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래 인류가 가상 세계가 아닌 진짜 현실에서 살 확률은 10억분의 1에 불과하다." 매트릭스와 같은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VR 세계가 이제는 실제 현실이 되고 있다. E&C

– 출처 : KISTI의 과학향기 –



Exhibition

덴마크 디자인展

기 간 : ~ 11월 20일 장 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덴마크 왕실의 꽃이 된 도자기, 로얄코펜하겐부터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의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케네디가 앉아 유명해진 한스 베그너의 '라운드 체어(Round Chair)'까지 덴마크를 대표하는 디자인 작품 200점으로 구성되었다. 덴마크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20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핀율, 아르네 야콥센 등 거장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을 통해 현대 가구의 시작을 확인하며, 브릭아트의 대명사 '레고(LEGO)', 프리미엄 스피커 브랜드 뱅앤올룹슨(Bang&Olufsen)의 시작을 알리는 빈티지 라디오까지, 덴마크를 대표하는 디자인 작품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이다. 이들의 디자인 작품 속에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충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표현이 담겨있다. 덴마크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전거 대국으로의 일면 등 그들의 삶을 비추는 다양한 디자인 작품들과 함께 리샤르 모르텐센(Richard Mortensen)이나 로버트 야콥슨(Robert Jacobsen) 등 덴마크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덴마크의 독특한 문화와 유산을 함께 보여준다.

www.sac.or.kr

Musical

킹키부츠

기 간 : ~ 11월 13일 장 소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폐업 위기에 처한 아버지의 구두공장을 물려받게 된 '찰리'는
우연히 만난 아름다운 남자 '롤라'에게 영감을 얻어 재기를 꿈꾼다.
신사화가 아닌 남자가 신는 80cm 하이힐 부츠 '킹키부츠'를 만들기로 한 것.
핫하고 섹시한 킹키부츠를 밀라노 패션쇼에서 선보이려 하지만, 롤라와 공장
직원들의 협업은 어렵기만 한데... 결국 밀라노 런웨이에 홀로 서게 된 '찰리'
그는 과연 '킹키부츠'로 성공할 수 있을까?

www.bluesquare.kr

Book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미국에서 동양인 최초로 원자력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완영,
그는 대한민국을 반핵의 물결을 뚫고 원자력 발전량 세계 5위,
원전 운영능력 세계 2강, 그리고 美· 日· 佛, 캐나다와 어깨를 당당히 겨루는 원전수출국,
자랑스러운 코리아를 만든 개척자이자 원자력계의 '현대판 문익점'이다.

국내 원전 1호인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1978년 이후 39년 만에 최초로 한국형 원자로로 만든 원전 수출국에서 이제는 '원전 운영기술 수출'에도 성공하게 되었다. 바로 이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었던 바탕에는 미국에서 동양인 최초이자 한국인으로 원자력 전공 박사 1호를 딴 전완영 박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땀흘림 덕분이였다. 특히 지난 2009년 연말에 최초로 해외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프로젝트에 관해서 원자력계의 대선배로서 저자가 느끼는 여러 의견과 코멘트를 담고 있다. 미 국무성 장관을 지낸 키신저와 함께 뉴욕주립대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휴직한 중진 교수로 기록된 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와 한전 원자력분야 사장 특별고문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조국의 원자력 입국(立國)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영광 3, 4호기 건설때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를 통해 우리가 원전 주기기의 핵심 설계기술을 이전받는데 막후에서 큰 역할을 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자립을 이끈 원자력계의 '현대판 문익점'이 되었다.

전완영 저 | 글마당

Movie

닥터 스트레인지

모든 것을 초월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히어로가 온다!
불의의 사고로 절망에 빠진 천재 외과의사
'닥터 스트레인지(베네딕트 컴버배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 간 곳에서 '에인션트 원(틸다 스윈튼)'을
만나 세상을 구원할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한 최강의 히어로로 거듭나는데...

상영중

KEPCO E&C News

2016년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2016년도 제2차 임시주주총회가 10월 14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용인 및 김천 사옥 일부의 임대 사업을 통한 회사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 해외 원전해체 연구용역 수주

– 독일 프로이센일렉트라社와 원전해체 비용 및 에너지 최적화 연구 수행 –

회사는 독일 프로이센일렉트라(PreussenElektra GmbH)사와 '원전해체 연구 용역'을 체결했다. 우리 회사는 원전해체 관련 비용 및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계통 변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원전 해체 준비단계에서 해체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계통의 추가나 개조시, 그로 인한 비용 이득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해외 원전 해체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원전엔지니어링 경험과 기술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4년부터 양사가 추진중인 '독일 원전해체사업경험의 국내 기술 전수', '원전해체 국제공동연구 개발', '한전기술의 독일 원전해체 사업 참여' 등의 협력관계의 일환으로 원전해체에 관한 각종 기술을 국내에서 축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해외 원전해체에 관련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프로이센일렉트라는 독일 최대 전력회사 이온(E.ON Kernkraft GmbH)의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2016년 7월 1일 분리 신설된 회사이다. 프로이센일렉트라사는 독일 내 원전 운영 및 해체 등 재생에너지, 송배전 업무를 담당한다. 뷔르가센(Würgassen) 원전, 스타데(Stade)원전을 해체 완료하였으며 향후, 영구 정지된 3기의 원전 해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회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원전해체 전반에 걸친 기술 개발에 전력해왔으며, 해체기획과 해체완료 후 부지복원 분야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진태은 미래전력기술연구소장은 "이번 용역 수주를 계기로 독일 및 미국 등 해외 원전 해체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원전해체에 대비한 완벽한 기술개발 및 사업경험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6년 품질안전환경처 등 청렴윤리 워크숍 개최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 및 청렴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본부단별 청렴윤리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품질안전환경처는 8월 17일, 품질안전환경처장을 비롯하여 부서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품질안전환경처 청렴윤리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부서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의의와 함께 여러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아울러, '함께하는 청렴윤리, 신뢰받는 한국전력기술'이라는 회사 청렴윤리 슬로건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응조 품질안전환경처장은 "보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전 부서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원자력본부는 올해 초부터 승급자 직원 및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플랜트본부는 지난 7월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자로설계개발단 역시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원전감독법 및 청렴윤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청렴윤리 법률교육 실시

회사는 8월 29일 본사 근무 전 직위자를 대상으로 청렴윤리 법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원전감독법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도 제고를 통하여 비리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법무팀 고재석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진행하였다. 강의는 원전감독법, 청탁금지법 관련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주요내용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회사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에 앞장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5개 원전공공기관 원전감독법 준수 노력

우리 회사를 비롯한 5개 원전공공기관(한전기술, 한수원, 한전KPS, 한전연료, 한전)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비리 예방을 위한 투명경영과 관련하여 2년간('16~'17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2월 29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은 원전감독법 시행('15.7) 이후 원전 공공기관에서 처음 수립·제출한 보고서로, 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한 기관의 「종합이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원전공공기관들은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절차 마련,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정부대책으로 추진해 온 사항들을 운영계획에 따라 이행하게 되며, 산업부는 '운영계획'을 통해 기관들의 의무 이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간다.

제3차 친절 모범직원 선정

회사는 생산성 향상과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밝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3차 친절 모범직원을 선정하였다.

구 분	선정자		추천자	
친절직원	신성장기술전략실(선임급)	심 상 훈	기획처(책임급)	변 성 준
	(주)시스원(차장)	조 원 일	정보보안전략실(책임급)	한 윤 희
모범직원	삼의공영(차장)	이 승 하	원자력)기계기술그룹(책임급)	김 우 식
봉사직원	민재산업(사원)	김 은 옥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사원)	최 효 정

왜 승진이 안 되는 거야!

| 타인에게 인사청탁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 직원 등에게 청탁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타인에게 인사 청탁

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승진이 늦나요?
인사담당 부서에 한 번 물어봐야겠어요.

직원이 자신의 인사 고충사항을 말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지만, 그 외 자신 또는 다른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청탁을 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윤리행동강령 위반입니다.

Inside Outside

참사랑봉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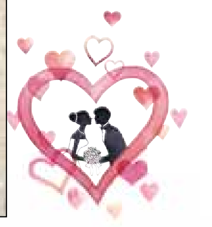
플랜트본부

회사는 9월 23일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배식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김재원 플랜트본부장을 비롯한 플랜트본부 주요 직위자 10여명은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김천 지역 이웃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직원들은 복지관을 방문한 3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오전 11시부터 3시간 가량 담소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아울러, 앞선 9월 7일에는 결연기관인 애훈장애인복지시설과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각각 후원물품과 후원금 150만원을 전달하였다.
회사는 2005년 창단한 참사랑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농어촌 결연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배식봉사 활동을 비롯해 농촌지역 한방의료 지원, 독거노인 월동 지원, 사랑의 집짓기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나갈 방침이다.

사우 애경사

결혼

이정형 대리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양명덕 부장 자녀 : 9월 3일 노블발렌티
- 원자로)사업책임자실 백종만 상무 자녀 : 9월 3일 더베일리하우스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이정형 대리 : 9월 11일 외교센터 더모스트
- 원자력기술그룹 이규광 부장 자녀 : 9월 24일 창원 미래웨딩캐슬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서혁기 과장 : 10월 8일 라온스퀘어
- 신성장기술전략실 전민재 대리 : 10월 8일 더컨벤션 교통회관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안승율 부장 자녀 : 10월 8일 제주 상그릴라비치
- 원자력기술그룹 박정규 대리 : 10월 8일 궁전회관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진태은 상무 자녀 : 10월 8일 전국은행연합회관

부음

- 신재생환경기술그룹 조기창 처장 장모상 : 8월 21일 유성 선병원
- 원자로)기계설계그룹 김종민 부장 장모상 : 8월 23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배창준 부장 장인상 : 8월 24일 서울 아산병원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이상배 부장 모친상 : 8월 24일 홍천군장례식장
- 원자력)사업관리기술그룹 하무형 부장 장모상 : 8월 28일 원자력병원
- 신성장기술전략실 조성호 부장 장모상 : 9월 11일 광주 신세계장례식장
- 플랜트사업관리실 이병수 부장 부친상 : 9월 12일 성남시장례식장
- 원자력기술그룹 이호상 대리 모친상 : 9월 13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우회 동정

2016 추계 명승지 탐방 행사 안내

- 행 사 일 : 2016년 10월 26일(수)
- 탐 방 지 : 홍천 수타사, 인제 자작나무숲
- 참가회비 : 20,000원
- 접수기간 : 10월 18일(화) 까지

회원소식

안원찬 회원 세 번째 시집 「귀가 운다」 출판기념회
- 일 시 : 2016년 10월 8일(토), 오후 4시
- 장 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송학로 20(연봉리 250-3)
  한림정 대장군 홀(Tel. 033-434-8300)

결혼

허두욱 회원 차남 : 9월 24일 헤리츠웨딩컨벤션

부음

김길조 자문위원 본인상 : 9월 18일 현대아산병원
허두욱 회원 모친상 : 9월 25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관리서비스 부실한 렌탈 정수기 이용 계약해지 시 분쟁해결기준은?

Question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정수기 렌탈료 청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A씨(여, 40대)는 2012년 5월에 4년 약정으로 정수기 렌털서비스 이용 계약 후 월 19,9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사업자의 부도로 2015년 5월 이후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인수받은 업체에서 관리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은 4개월 동안의 렌탈료 79,600원을 청구하여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았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 이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Answer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은 환급 가능

정수기임대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발생, 필터교체 및 A/S지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등 정수기임대 관련 분쟁유형과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한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지급 거절할 수 있고 필터교환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C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 시 주의하세요!

계약 시에는 청소 및 필터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렌탈 기간·임대료 등 기본 내용과 특약 사항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여 보관한다. 또한 렌탈료를 자동이체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은데 관리비 이중인출, 계약해지 이후에도 인출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동이체내역을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자연의 속도

식물은 꽃을 한꺼번에 피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보유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에너지를 과도하게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짝짓기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차례로 꽃피우고 짝짓기 성공여부를 확인하고 피웁니다.
주변 생물에게 나눔과 배려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웃되어 사는 식물에게 땅의 양분과 물을 공유... 배려하고
수정을 돕는 벌과 나비에게 하루에 한끼 식량을 나눠줍니다.
자연의 속도가 느리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속도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도를 위해 자연의 속도를 초과하여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의 차이로 인해 나무는 1000년을.. 사람은 100년을 삽니다.

글·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